

東醫寶鑑 부종편의 원문과 인용문헌에 대한 비교고찰

양준석 · 고흥곤 · 진재호 · 한 웅 · 정상훈 · 김 호 · 이동주 · 이광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Consideration of the Comparing the Original Texts with Quotations in Edema Chapter of *Dong-Yi-Bo-Gam*

Jun Suk Yang, Hyoung Gon Ko, Jae Ho Jin, Woong Han, Sang Hun Jeong, Ho Kim, Dong Ju Lee, Kwang Gyu Lee*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We studied on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original texts with quotations in edema chapter of *Dong-Yi-Bo-Gam*. The research mainly depended on compare and consider these original text and quote. In Pyong Yeol Byong chapter of SoMoon, Su Yeol Hyul chapter of SoMoon, Pyong Yin Ki Sang chapter of SoMoon, Ja Jeol Jin Sae chapter of YoungChu,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黃帝內經;ECIM), We were able to find that some sentences about edema were quoted. Drug arrangement order that construct herb medicine is disposed depends on drug's weight, and all unit was concorded by Jeon and Pun. Quoted words in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黃帝內經;ECIM) does not perfectly match with original text. However, edema chapter of *Dong-Yi-Bo-Gam* is identical with original text, because only few words were deleted or inserted.

Key words : *Dong-Yi-Bo-Gam*, edema,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黃帝內經)

서 론

허준은 조선 초·중기시대의 의학이 이주의학(李朱醫學)의 도입으로 고래의 전통의학과 혼용되어 난맥상을 이룬 것을 재통일하고자 하는 의도 뿐만아니라 역병 및 임진왜란으로 인한 기역대책(飢疫對策)의 일환으로 의학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던 선조(1596)의 요청으로 당시 태의(太醫)였던 양예수(楊禮壽)를 비롯하여 유의(儒醫) 정작(鄭碩), 김응탁(金應鑾), 이명원(李命源), 정예남(鄭禮男)등과 함께 왕명에 의하여 내국(內局)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의서 편찬에 착수하였다¹⁾. 그러나 선조 30년에 (1597) 정유재란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궁의 내장서 500권을 허준에게 내주면서 다시 시작해 1610년 8월 14년간의 각고(刻苦) 끝에 동의보감의 완성을 보게 되었고²⁾, 1613년에 정식으로 계속내의원개간본(癸丑內醫院開刊本)을 간행하였다. 이후로 10번을 더 발간하였다³⁾.

동의보감은 중국의학서적의 단순한 요약으로 평가되기 쉬우나 거기에 수록된 처방들은 허준 자신이 실제 임상을 통하여 효과를 경험한 처방을 중심으로 수록한 것⁴⁾이다. 대다수 의서는 서문이나 본문에 저자의 생각을 밝히거나 혹은 인용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히거나 혹은 按 또는 愚按을 써서 저자의 사상을 밝힌 것⁵⁾에 비해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문장마다 인용문헌을 밝혔다. 때문에 허준의 의학사상을 알기가 매우 어려워서 대부분의 후세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으로 허준의 의학사상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그 중 鄭은 '신체관'과 '질병관'에 관한 연구⁷⁾뿐만 아니라 질병분류를 통해 허준의 의학사상을 연구하고 있고⁸⁾, 金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허준의 사상을 연구⁹⁾

* 교신저자 : 이광규,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l@woosuk.ac.kr, · Tel : 063-290-1562
· 접수 : 2004/05/17 · 수정 : 2004/06/22 · 채택 : 2004/07/26

1) 한송 정우열교수 정년기념 한송논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동문회, 2003. p.6
2) 上揭書 p.6
3) 東醫寶鑑校釋, 高光震 等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2001. p.5.
4) 한송논총 p.740
5) 醫學入門
6) 김호, 許潑의 東醫寶鑑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16권 1호, 1994.
7) 한송논총 pp.169-181
8) 上揭書, p.565-636
9) 동의보감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의학론, 김호, 서울대학교학 박사논문

하였고, 국¹⁰⁾은 동의보감에서 인용문이 원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방법을 통하여¹¹⁾ 사상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저자는 동의보감 잡병편에 있는 부종(浮腫)문 선택하여 인용문과 원문을 비교하여 삽입되거나 빠진 문장이나 단어 등을 교감을 통해서 허준의 의학사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1. 研究方法

본 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문을 그대로 제시하였으며 동의보감에 인용된 문구가 원저의 문구와 다를 경우에는 校勘考察 解釋의 順으로 연구하였다.

- 1) 原文은 甲戌年(1634) 內醫院 校正 完營 重刊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 2) 校勘에 사용된 문헌은 표로 표시하였다. 교감에 인용된 문헌 중 단행본을 구하지 못한 仁齋直指方 類證普濟本事方 등은 欽定四庫全書에서, 醫學正傳 萬病回春 古今醫鑑 등은 中華醫書集成에서, 丹溪를 비롯한 金元四大家는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下)의 원문을 인용하였다.
- 3) 원문과 인용문을 비교하여 삽입 또는 탈락된 문구 “ ” 로 표기하였고, 醫書名稱은 “ ” 로 하였다.
- 4) 일부 인용문은 허준이 제시한 의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확인 안 됨이라 표시하였고, 제시된 문헌을 찾지 못한 것도 확인 안 됨이라 표기하였다.

2. 자료

- 校勘書名 및 略稱

心』 ○ 7) 腎熱 傳於膀胱 熱盛逆於脾胃 脾虛而不能制腎水 脾主四肢 故流走而身面 皆腫也 若加喘者 重也 何以然 腎水勝而克退 脾土 反勝心火 又勝肺 肺爲心克 故喘也 『錢乙』 ○ 8) 久喘 久瘧 久痢 羸悴之餘, 皆患此病 『入門』

校勘書名 및 略稱

번호	書名	略稱	비고
1	黃帝內經	內經	欽定四庫全書
2	傷寒辨疑	辨疑	
3	世醫得效方	得效	中華醫書集成
4	編注醫學入門	入門	
5	醫學綱目	綱目	中華醫書集成
6	新編仲景全書	仲景	
7	衛生寶鑑	寶鑑	中華醫書集成
8	類證普濟本事方	本事	欽定四庫全書
9	丹溪心法	丹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0	丹溪纂要	丹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1	丹溪摘玄	丹溪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2	小兒藥證直訣	錢乙	
13	東垣試效方	東垣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4	活發機要	東垣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5	醫學發明	東垣	金元四大家醫學全書
16	三因極一病證方論	三因	欽定四庫全書
17	萬病回春	回春	中華醫書集成
18	脈經	脈經	中華醫書集成
19	仁齋直指方	直指	欽定四庫全書
20	醫學正傳	正傳	中華醫書集成
21	太平聖惠方	聖惠	
22	新刊醫家必用	必用	
23	活人心法	活人心	
24	古今醫鑑	醫鑑	中華醫書集成
25	醫林撮要	醫林	

본 론

■ 浮腫之因

○ 腫者 鐘也 寒熱氣 所鐘聚也 『醫鑿』 ○ 1) 諸濕腫滿 皆屬於脾土 『內經·至真要大論』 ○ 三陰結 謂之水 註曰 三陰結 謂脾肺之脈 俱寒結也 脾肺寒結 則氣化爲水 『內經·陰 陽別論篇』 ○ 2) 下焦溢 爲水 註曰 下焦爲分注之所, 氣壅不瀉則爲溢水 『內經·宣明五氣 篇』 ○ 3) ① 問曰 少陰 何主腎 腎何以主水 對曰 腎者 至陰也 至陰者 盛水也 肺者 太陰也, 少陰者 冬脈也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皆積水也 問曰 腎何以能聚水而生 病 對曰 腎者 胃之關也 ② 關閉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 上下溢於皮膚 故爲附腫 附 腫者 聚水而生病也 『內經·水熱穴論篇』 ○ 4) 附腫 謂皮肉俱腫 按之陷下泥 而不起也 『內經』 ○ 5) 陰陽氣道不通 四海閉塞 三焦不瀉 津液不化 水穀并行腸胃之中 別于迴 腸 留于下焦 不得滲 膀胱則下焦脹 水溢則爲水脹 『靈樞·五癯津液別』 ○ 6) ① 水腫 由脾 虛濕勝 凝滲滲道 水漬妄行 故通身面目手足 皆浮而腫 ② 皮薄而光 手按成窟 舉手 卽滿 是也 ③ 或腹大如鼓 而面目四肢不腫者 名曰脹滿 又名鼓脹 皆脾土濕熱 爲病 腫輕而脹重也 『丹

1. 校勘

- 1) 『內經·至真要大論』¹²⁾에는 “土”가 없다.
- 2) 『內經·宣明五氣篇』¹³⁾에는 “爲溢而爲水”로 되어 있다.
- 3) 『內經·水熱穴論』¹⁴⁾에서 ①은 “黃帝問曰”, “岐伯對曰”로 되어 있고, ②에서 “閉”는 “門”으로 되어 있다.
- 4) 『內經』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5) 『靈樞·五癯津液別』¹⁵⁾에는 “水溢則爲水脹” 뒤에 “此津液五別之順逆也”이 연결되어 있다.
- 6) 『丹溪』¹⁶⁾①에서는 “因脾虛不能制水 水漬妄行”라 되어 있고, “凝滲滲道”, “故通身面目手足 皆浮而腫”은 나와 있지 않으며, ②앞에는 “其狀 目胞上下微起 肢體重著 咳喘 怔忡 肢間清冷 小便澁黃”이 있고, ③은 나와 있지 않다.
- 7) 『錢乙』¹⁷⁾에는 “腎熱 傳於膀胱 膀胱熱盛逆於脾胃 脾胃虛而不能 制腎 水反克土 脾隨水行 脾主四肢 故流走而身面 皆腫也 若大喘者 重也 何以然 腎大盛而 克退脾土 上勝心火 心又勝肺 肺爲心克 故喘”이라 되어 있다.
- 8) 『入門』¹⁸⁾에는 “久病 喘 咳 瘧 痢 或誤服涼藥 以致腫者 危

문, 2000, pp.24-49.

10) 鞠潤旭; 동의보감 응저론(上)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東醫寶鑑, 동의과학연구소 동의보감편찬위원회, 휴머니스트, 2002.

12)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1, 大成文化社, 1995, p.733-296

13) 上揭書 p.733-85

14) 上揭書 p.733-183

15) 上揭書 p.733-373

16)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發行,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168

17) 小兒藥證直訣, 王泮芬·張克林 点注,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29

證也”라고 되어있다.

2. 考察

校勘 1)에서는 글자를 첨가하였고 校勘 2),3)에서는 글자를 탈락하여 간략히 하였으며 校勘 4)는 『內經』는 에서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高光震등이 校釋한 『東醫寶鑑校釋』 19)에 의하면 許浚은 『內經』, 『靈樞』, 『難經』 등의 經典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가감 없이 全文을 인용했다고 했으나 『黃帝內經』의 인용문에서도 생략하거나 첨가한 것으로 보아 高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校勘 6), 7), 8), 에서 보면 허준은 원래의 인용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나 글자를 생략 하거나 혹은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첨가한 것을 엿 볼 수 있으며, 全文보다는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校勘 6) ③처럼 脹滿과 비교설명하기 위한 문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高光震등이 校釋한 『東醫寶鑑校釋』 20)에 의하면 허준은 『內經』, 『靈樞』, 『難經』 등 이외의 醫書인용은 문구보다는 뜻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문구나 글자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校勘 7)의 錢乙은 小兒藥證直訣의 著者로 書名대신 著者로 인용서적을 표기한 경우이다.

■ 浮腫徵兆

○ 諸有水氣者 微腫 先見於目下也 帝曰 1) 何以言之 岐伯曰 水者陰也 目下 亦陰也 腹者 至陰之所居 故水在腹者 必使目下腫也 『內經·評熱病論篇』 ○ 目裏微腫 如臥蠶起之狀 曰水 『內經·平人氣象論篇』 ○ 頸脈動 喘疾咳曰水 『內經·平人氣象論篇』 ○ 足脛腫曰水 『內經·平人氣象論篇』 ○ 視 2) 人之目窠上微準 如蠶新臥之狀 其頸脈動 時咳 按其手足上 胛而不起者 風水府脹也 鼻頭色 微黑者 有水氣 『靈樞·論疾診尺』 ○ 腰脊者 身之大關節也 肢脛者 人之管以趨翔也 莖垂者 身中之機 陰精之候 津液之道也 故飲食不節 喜怒不時 津液內溢 乃下流於臑 血道不通 目大不休 俛仰不便 趨翔不能 此病榮 3) 然有水也 『靈樞·刺節真邪』

1. 校勘

- 1) 『內經·評熱病論』 21)에는 “何以言”으로 되어 있다.
- 2) 『靈樞·論疾診尺』 22)에는 “壅”이 “癰”으로 되어 있고 “如蠶新臥起之狀”에서 “蠶”이 없다.
- 3) 『靈樞·刺節真邪』 23)에는 “然有水” 뒤에 “不上不下 鍼石所取 形不可匿 常不得蔽 故命 曰去爪 帝曰善”이 연결되어 있다.

2. 考察

校勘 2)의 경우 『靈樞經校釋』 24)에서는 “癰”은 “壅”과

같으며 腫의 의미라 하였으나 “壅”은 ‘복돋우다’의 뜻으로 문맥상 腫氣를 뜻하는 “癰”보다 타당하므로 허준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

■ 浮腫形證

○ 1) 水病 下爲筋腫大 腹上爲喘呼 不得臥者 標本俱病 故肺爲喘呼 腎爲水腫 肺爲逆不得臥 『內經·水熱穴論篇』 ○ 濕勝則濡泄 甚則水閉附腫 『內經·六元正紀大論篇』 ○ 2) 水病有五種 一曰 風水 其脈自浮 外證 骨節疼痛 惡風 ○ 二曰 皮水 脈亦浮 外證 附腫按之沒指不惡風 其腹如鼓不渴 當發其汗 ○ 三曰 正水 其脈沈遲 外證 自喘 ○ 四曰 石水 其脈自沈 外證 腹滿不喘 ○ 五曰 黃汗 其脈沈遲 身發熱 胸滿四肢 頭面腫久不愈 必致癰腫 3) ○ 又曰 久則肌肉潰爛 陰囊 足脛水出 『仲景』 ○ 4) 又有五藏水 心水者 其身重而少氣 不得臥 煩而躁 其陰大腫 肝水者 其腹大 不能自轉側 脇下腹中痛 時時津液微生 小便續通 肺水者 身腫 小便難 時時鴨鳴 脾水者 其腹大 四肢苦重 津液不生 但苦少氣 小便難 腎水者 其腹大 臍腫 腰痛 不得溺 陰下濕如牛鼻上汗 其足逆冷而黃瘦 『仲景』 ○ 5) 其狀目胞上下微腫 如裹水 通身浮腫 咳喘 怔忡 股間清涼 小便澀黃 皮薄而光 手按成窟 舉手即滿 是浮腫也 『直指』 ○ 6) 又有陽水 陰水 陽水 多外因涉水冒雨 或感風寒 暑濕 其證先腫上體 肩背手臂熱 渴而二便閉 ○ 陰水 多內因飲水 及茶酒 飢飽勞役 房勞 其證 先腫下體 腰腹脛胛身涼 大便利 『入門』 ○ 不煩渴 大便溇 7) 小便不赤澀 此爲陰水 『正傳』 ○ 又曰 石水者 腎水 停在臍下 小腹腫大結硬 如石 故云石水 ○ 肺水者 流溢皮膚 遍身皆腫 但腹如故不滿亦不渴 ○ 水蠱者 水毒之氣 結聚於內 令腹漸大 動搖有聲 常欲飲水 皮膚蠱惡 『類聚』 확인안됨 ○ 朝寬暮急 血虛 暮寬朝急 氣虛 8) 朝暮急 血氣俱虛 『丹心』

1. 校勘

- 1) 『內經·水熱穴論』 25)에는 “筋”이 “附”로 되어 있고 “肺爲逆不得臥” 뒤에 “分爲相 輸俱受者 水氣之所留也”가 있다.
- 2) “水病有五種”, “一曰”, “二曰”, “三曰”, “四曰”, “五曰”은 첨가된 어구로 『仲景』 26)에는 없다.
- 3) 『仲景』에는 나와 있지 않다.
- 4) 『仲景』 27)에는 “又有五藏水”의 문장이 없고, “脇下腹中痛”은 “脇下腹痛”으로 되어있으며, “身腫小便難” 앞에 “其”가 없고, “其足逆冷而黃瘦”은 “其足逆冷面反瘦”로 되어 있다.
- 5) 『直指』 28)에는 “腫”이 “起”로 “如裹水 通身浮腫”이 “肢體重着”으로 되어 있고, “涼”은 “冷”으로 되어 있으며 “浮腫”은 첨가된 단어이다.
- 6) “又有陽水 陰水”는 『入門』 29)에는 없는 첨가된 어구이며, “陽水 ~ 大便利”는 『入門』의 “上下陰陽微”의 註로써 “陽水 多外因涉水 冒雨 或兼風寒暑 氣而見陽證 陰水多內因 飲水及

18)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李挺, 大成文化社, 1990. p. 106

19) 東醫寶鑑校釋, 高光震 等校釋, 人民衛生出版社, 2001. p. 6 “全文引用, 不加改動. 此類引文多爲 『內經』, 『靈樞』, 『難經』等經典文獻. 此反映了許氏遵經守道的嚴謹的治學態度.”

20) 上揭書 p. 6 “通常此種引文爲 “意引”, 卽按其原意, 適當引用而又略加改動和取舍”

21) 欽定四庫全書 1. p. 733 111

22) 上揭書 p. 733 413

23) 上揭書 p. 733 415

24) 靈樞經校釋 下冊, 河北醫學院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15 “癰與壅同. 腫的意思.”

25) 欽定四庫全書 1. p. 733-184

26) 新編仲景全書(金匱要略), 張仲景, 大成文化社, 1993. p. 41

27) 上揭書 p. 42

28) 欽定四庫全書 12. p. 744-343

29) 編註醫學入門 外集卷 2. p. 104

茶酒過多 或飢飽 勞役 房慾 而見陰證 陽水 先腫 上 體肩背手膊 手三陽經 陰水 先腫下體 腰腹脛附 足三陰經”으로 되어 있다.

7) 『正傳』³⁰⁾에는 “不煩渴” 앞에 “煩渴小便赤澁 大便秘結 此爲陽水”라 나와 있으며, “小便不赤澁”은 “小便少而不赤澁”으로 되어 있다.

8) 朱震亨의 『丹溪心法』³¹⁾에는 “終日急 氣血皆虛”으로 되어 있다.

2. 考察

校勘 6)에서는 불필요한 문구를 생략하여 문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校勘 8)은 鼓脹편에서 인용하였다.

■ 脈法

○ 1) 脈得諸沈當責有水,身體腫重 『仲景』 ○ 水病 脈洪大者 可治 微細者 不可治 ○ 2) 水病 腹大如鼓 脈實者生 虛者死 『脈經』 ○ 水氣 得沈脈則逆 此陰脈也 『東垣』 확인안됨 ○ 水氣 浮大宜 沈細則愈而復作 ○ 上氣浮腫 浮滑 可安 微細 難療 『得效』 ○ 水腫 脈多沈伏 ○ 病陽水 兼陽證脈沈數 病陰水兼陰證 脈必沈遲 『正傳』 3) ○ 沈伏相搏 名曰水 陽虛陰實 爲水 必矣 『三因』

1. 校勘

1) 『仲景』³²⁾에 나온 “少陰脈緊而沈 緊則爲病 沈則爲水 小便難 脈得諸沈當責 有水 身體腫重 水病脈出者死”에서 일부 인용하였다.

2) 『脈經』³³⁾의 診百病生死訣編에는 “水病 脈閉 其脈浮大軟者 生 沈細虛少者死”이 연결되어 있다.

3) 『三因』³⁴⁾에는 “名曰水”와 “陽虛陰實” 사이에 “沈則絡脈虛伏 則小便難 虛 難相搏 水走皮膚卽爲正水 此金匱節文 所以用寸口 跌陽二脈者 益水氣不在一 經也 大抵脈浮滯數 卽是虛寒 潛止於其間久必沈伏 沈伏則”이 들어 있다.

2. 考察

校勘 1) 2) 3)에서 보면 脈法의 내용은 원문에서 꼭 필요한 일부 내용만 인용하여 간략하게 정리 하였다.

■ 水腫治法

○ 1) 治腫脹大法 宜補中 行濕 利小便 以人蔘 白朮爲君 蒼朮 陳皮 茯苓爲臣 黃芩 麥門冬爲使 以制肝木 少加厚朴 以消腹脹 氣不運 加木香 木通 氣下陷 加升麻 柴胡 此補中治濕湯方也 『丹心』 ○ 2) ① 治浮腫 宜以辛散之 以苦泄之 以淡滲利之 使上下分消 ② 其濕正所謂 開鬼門 潔淨府 開鬼門者 謂發汗也 潔淨府者 利小便也 『東垣』 ○ 3) 夫爲腫之水 乃腐濁之氣 滲透經絡 流走谿谷 灌入隧道 血亦因之而化水 欲藉脾土 以制之 導腎氣以利之 殊不知脾病 則金氣衰 木寡於畏而來侮土 脾欲不化之職 肺氣下降 滲道開通 使敗濁之氣 稍清者 復回而爲氣 爲血爲津液 甚者 在上爲汗 在下爲尿 以漸而分消矣 『丹心』 ○ 4) 諸有水者 腰以下腫 當利便 宜五苓散方見寒門 澤瀉散 神助散 腰以上腫 當發汗乃愈

宜麻黃甘草湯 越婢湯 防己茯苓湯 『仲景』 ○ 5) 陽水 宜八正散 方見小便 或人蔘敗毒散方見寒門 加麻黃 防風 黃芩 梔子服 陰水 宜實脾散 胃苓湯 復元丹 『諸方』 ○ 6) 他病久則皆能變水 因雨濕而浮腫 宜平胃散方見內傷 加白朮 赤茯苓 草豆蔻 且服導滯通經湯 『寶鑑』 ○ 飲水過多而浮腫 宜胃苓湯方見大便 加減胃苓湯 退腫塌氣散 『聖惠』 확인안됨 ○ 7) 久喘後水氣 宜分氣飲 葶藶丸 ○ 8) 久癉變水氣 宜黃甲丸方見瘡門 退黃丸方見血門 ○ 9) 久癉變水氣 宜加味腎氣丸 或補中益氣湯方見內傷 加炮附子久服 ○ 癉癉後 通用五皮散 『入門』 확인안됨 ○ 10) 水蠱證 黃米丸 漆雄丸 青木香元方見前陰 『入門』 ○ 瀉濕泄水 宜 三花神祐丸方見下門 煨腎丸 神助散 『入門』 확인안됨 ○ 11) 瘡疥變水腫 宜赤小豆湯 『入門』 ○ 水腫 泄瀉 宜葶藶木香散 大橘皮湯 『丹心』 확인안됨

1. 校勘

1) 朱震亨의 『丹溪心法』³⁵⁾에는 “治腫脹大法”이 없고, “用二陳湯 加白朮 人蔘 蒼朮爲主 佐以黃芩 麥門冬 炒梔子制肝木 若腹脹 少佐以厚朴 氣不運 加木香 木通 若氣陷下 加 升麻 柴胡 提之 隨病加減”이라 되어 있으며 “此補中治 濕湯方也”는 첨가된 어구이다.

2) ①은 李東垣의 『東垣試效方』³⁶⁾에서 인용하였으며 “治浮腫”을 삼입하였고, ②역시 李東垣의 『活發機要』³⁷⁾에는 “其濕正所謂”과 “謂”는 없으며, “府”는 “腑”로 되어 있다.

3) 朱震亨의 『丹溪纂要』³⁸⁾에는 “今爲腫之水 乃濁腐之氣 滲透經絡 注流谿谷 灌入隧道 血亦化水 欲藉脾土 以制之 導腎氣以利之 不知脾病 則金氣衰 木寡於畏而來侮脾 欲不化之職 肺氣下降 滲道開通 敗濁之氣 稍清者 復回而爲氣 爲血爲津液 敗濁之甚者 在上爲汗 在下爲溺 以漸而分消矣”이라 되어 있다.

4) 『仲景』³⁹⁾에는 “宜五苓散 澤瀉散 神助散”과 “宜麻黃甘草湯 越婢湯 防己茯苓湯”은 나와 있지 않다.

5) 이것은 누구의 처방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許濂의 경험방 일수도 있다.

6) 『寶鑑』⁴⁰⁾에는 없는 문장으로 “年壯時多曾服牽牛, 大黃藥 面目四肢 時有 浮腫 今因陰雨故大發”의 문장으로 대신 할 수 있고, 처방은 “遂用平胃散 加白朮 茯苓 草豆蔻 數服而腹脹 渣泄 腸鳴 時痛皆 愈飲食進 止有肢體浮腫 以導 滯通經湯主之 良愈”라고 되어 있다.

7) 『入門』⁴¹⁾에는 “大概挾喘者 分氣紫蘇飲 五皮散 葶藶丸”이라 되어 있다.

8) 『入門』⁴²⁾에는 “久癉 退黃丸”이라 되어 있다.

9) 『入門』⁴³⁾에는 “久癉 加味八味丸”이라 되어 있다.

10) 『入門』⁴⁴⁾에는 “飲毒水而腫者 名水蠱 漆雄丸”이라 되어 있다.

35)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167

36) 上掲書 p. 685

37) 上掲書 p. 790

38) 上掲書 p. 1284

39) 新編仲景全書(金匱要略), p. 42

40) 中華醫書集成, 22책, 衛生寶鑑, p. 98

41)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106

42) 上掲書 p. 106

43) 上掲書 p. 106

30) 中華醫書集成, 中華醫書集成編輯委員會, 中醫古籍出版社, 1993, 25冊, p. 101

31)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168

32) 新編仲景全書(金匱要略), p. 42

33) 中華醫書集成, 4冊, p. 35

34) 欽定四庫全書 11, p. 743-348

11) 『入門』 45)에는 “乾麩 洗浴水氣入腹者 赤小豆湯”이라 되어 있다.

2. 考察

校勘 4) 에서처럼 원문에는 없으나 내용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補中治濕湯 ○ 通治水病 補中行濕 人蔘 白朮 各一錢 蒼朮 陳皮 赤茯苓 麥門冬 木通 當歸各七分 黃芩 五分 厚朴 升麻 各三分 剉作一貼 水煎服 『醫林』: 확인안됨

● 澤瀉散 ○ 治水腫 二便澀 澤瀉 赤茯苓 枳殼 豬苓 木通 檳榔 黑牽牛頭末 各等分 右爲末 生薑葱白湯 調下 二錢 『入門』:

1. 校勘

『入門』 46)에는 “澤瀉湯”으로 되어 있으며 “二便澀”은 “大小便秘澀”으로 “黑牽牛頭末”은 “黑牽牛”로 되어 있다. 복용법은 “爲末 每服二錢 生薑葱 白煎湯 調服”으로 되어 있다.

2. 考察

복용법의 문장으로 보아 허준이 명명한 “澤瀉散”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神助散 ○ 治遍身水腫 喘急 小便澀 黑丑頭末三錢 葶藶子炒二錢 椒目一錢半 豬苓 澤瀉 木香 各一錢 右爲末 先以漿水一盞 葱白三莖 煎至半盞 入酒半盞 調藥 三錢 絕早面東 服如人 行十里久 入漿水煮 葱白粥 入酒五合熱啜 當利小便三四升 隔日再服 須斷塩味 及房室三年 『直指』:

1. 校勘

『直指』 47)에는 “治水腫 牽牛炒取末 葶藶炒香 各貳兩半, 木猪苓水浸軟去皮切焙 澤瀉 木香 各壹兩, 川椒目 壹兩半 右末先以葱白 參莖漿水盞 煎半盞 入老酒半盞 調藥末參錢空心服”이라 되어 있다.

2. 考察

主治證과 煎湯法 및 服藥法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아 직접 경험하여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 1) 麻黃甘草湯 ○ 治腰上浮腫 麻黃三錢 甘草二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溫覆 令出汗 不汗再服 『仲景』: ○ 2) 有人患 氣促 積久不差 遂成水腫 服此湯 卽效 『得效』:

1. 校勘

1) 『仲景』 48)에는 “甘草麻黃湯”으로 되어 있고, “甘草二兩 麻

黃四兩 上二味 以水五升 先煮 麻黃 去上沫 內甘草 煮取三升 溫服一升 重覆汗出 不汗再服 慎風寒”이라 되어 있다.

2) 『得效』 49)에는 “服之有效”라 되어 있고, 處方은 “麻黃(去根節)四兩, 甘草 二兩”으로 되어 있다.

2. 考察

校勘 1)에서 麻黃의 煎湯法은 생략하였고, 校勘 2)에는 “卽效”라고 바꾸어 경험한 처방임을 암시한다.

● 越婢湯 ○ 治腰上浮腫 咳喘 麻黃三錢 蒼朮二錢 石膏 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五片棗二枚 水煎服 『綱目』:

1. 校勘

『綱目』 50)에는 “風水急風 一身悉瘡 脈浮不渴 續自汗出 無大熱 越婢湯 主之 麻黃 六兩 石膏 半兩 生薑 三兩 大棗 五十枚 甘草 二兩 風水 加朮 四兩 上五味 以水六升 先煮麻黃 去上沫 內諸藥煮三升 分溫服”이라 되어 있다.

2. 考察

麻黃이 들어간 處方의 煎湯法은 보편적인 내용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防己茯苓湯 ○ 治皮水 上體腫 赤茯苓三錢 防己 黃芪 桂枝各一錢半 甘草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綱目』:

1. 校勘

『綱目』 51)에는 “皮水爲病 四肢腫 水氣在皮膚中 四肢動者 防己茯苓湯主之”라 되어 있다. 處方은 “防己 黃芪 桂枝 各三兩 茯苓 六兩 甘草 二兩 上五味 以水之升 煮取二升 分溫三服”이라 되어 있다.

● 實脾散 ○ 治陰水發腫 先實脾土 厚朴 白朮 木瓜 草果 大腹子 附子炮 白茯苓各一錢 木香 乾薑炮 甘草炙各五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 『得效』:

1. 校勘

『得效』 52)에는 “發腫”이 없다. 處方은 木香, 乾薑炮까지 一兩으로 되어 있으며, 甘草炙는 半兩으로 되어 있다. 복용법은 “上鍊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棗子一枚 煎至七分 去滓 溫服 不以時服”으로 되어 있다.

2. 考察

原方의 복용법과는 달리 煎湯법을 간소하게 하였다.

● 復元丹 ○ 夫心腎眞火 能生脾肺眞土 今眞火既虧 不能滋養眞土

44) 上掲書 p. 106
45) 上掲書 p. 106
46) 上掲書 p. 289
47) 欽定四庫全書 12. p. 714 344
48) 新編仲景全書(金匱要略), p. 44

49) 中華醫書集成, 2冊, p. 191
50) 中華醫書集成, 24冊, p. 655
51) 上掲書 p. 655
52) 中華醫書集成, 2冊, p. 190

故土不制水 水液妄行 三焦不瀉 樞機不運 腫脹滿溢 喘息奔急 股冷舌乾 不能正偃 小便不通 2) 澤瀉二兩半 附子炮二兩 木香 茴香炒 川椒 獨活 厚朴 白朮路炒 橘皮 吳茱萸 桂心各一兩 肉豆寇煨 檳榔各五錢 右爲末 糊丸梧子大 紫蘇湯下五十丸 3) 此藥 世傳屢驗 其間君臣佐使 與造物同妙 當屏去諸藥 一日 三服 且禁慾絕鹹 半年『得效』

1. 校勘

1) 『得效』⁵³⁾에는 “治水腫 夫心腎眞火 能生脾肺眞土 今眞火氣虧 不能滋養眞土 故土不制水 水液妄行 三焦不瀉 氣脈閉塞 樞機不通 喘息奔急 水氣盈溢 滲漏經絡 皮膚滿溢 足脛尤甚 兩目下腫 腿股間冷 口苦舌乾 心腹堅脹 不得正偃 偃則咳嗽 小便不通 夢中虛驚 不能安臥” 으로 되어 있다.

2) 『得效』⁵⁴⁾에는 澤瀉가 一兩半으로 되어 있고 服用法은 “上爲末 糊丸 梧子大 每服 五十丸 不以時紫蘇湯下” 로 되어 있다.

3) 『得效』⁵⁵⁾에는 “此藥 世傳屢驗 未嘗示人 其間君臣佐使 與造物同妙 服者自知 要當 屏去諸藥 一日三服 先次旋利如傾 次乃腫消喘止 法當禁慾并絕鹹 半年乃 不再作” 으로 되어 있다.

● 導滯通經湯 ○ 赤茯苓 澤瀉各二錢 陳皮 桑白皮 白朮 木香各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 許魯齋 因霖雨所傷 肢體浮腫 大便溼 腹脹腸鳴 時痛 飲食減少 脈弦細而緩 此脾胃虛弱 而濕氣盛也 先服平胃散 加白朮 赤茯苓 草豆蔻 諸證皆愈 止 有四肢浮腫 用此藥全愈 『寶鑑』

1. 校勘

『寶鑑』⁵⁶⁾에는 “木香 白朮 桑白皮 陳皮 各五錢 茯苓(去皮) 一兩 右剉作一貼 水煎服 至元戊寅五月間 霖淫續雨不止 魯齋許平仲先生 時年五十有八 面目肢體浮腫 大便溼多 腹脹腸鳴 時痛 飲食短少 脈得弦細而緩 大便溼 腹脹腸鳴 時痛 飲食減少皆愈止” 라고 되어 있다.

2. 考察

“此脾胃虛弱 而濕氣盛也 先服平胃散 加白朮 赤茯苓 草豆蔻”은 『寶鑑』에 없는 문구로 허준이 경험한 처방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 退腫塌氣散 ○ 治積水 驚水 或飲水過多 積於脾 故四肢腫 而身熱 赤小豆 陳皮 蘿蔔子炒各二錢 甘草一錢 木香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丹心』 확인안됨

1. 校勘

塌氣丸이라는 처방명은 있으나 主治가 나와 있지 않고 處方構成도 전혀 다르다.

● 分氣飲 ○ 治腫脹 喘急 桔梗 赤茯苓 陳皮 桑白皮 大腹皮 枳

殼 半夏麩 蘇子炒 蘇葉各一錢 草果 甘草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得效』

1. 校勘

『得效』⁵⁷⁾에는 “治腫脹作喘 氣短而急 桔梗 赤茯苓 陳皮 桑白皮 大腹皮 枳殼 半夏麩 蘇子炒 蘇葉 各二錢 草果仁 一錢 上銼散 每服一錢半 水一盞 生薑二片 棗子一枚 煎服” 이라 되어 있다.

2. 考察

小兒편에 나오는 처방이다.

● 葶藶丸 ○ 治肺氣喘促 面目浮腫 葶藶子 防己 木通 杏仁 貝母 各一兩 右爲末 蒸棗取肉和丸 梧子大 桑白皮湯下五十丸 『入門』

1. 校勘

『入門』⁵⁸⁾에는 “治肺氣喘促 面目浮腫 喘促不安 小便赤澀 葶藶 防己 木通 杏仁 貝母 各一兩 爲末棗肉搗膏 爲丸梧子大 每五十丸 食遠桑白皮煎湯下” 이라 되어 있다.

● 加味腎氣丸 ○ 治腎虛 不能行水 以致浮腫 附子炮二兩 白茯苓 澤瀉 肉桂 牛膝 車前子炒 山藥 山茱萸 牡丹皮各一兩 熟地黃五錢 右爲末 蜜丸如梧子大 空心 米飲下七十丸 或百丸 『丹心』

1. 校勘

『丹溪』에는 나오지 않으며, 『入門』⁵⁹⁾에 “加味八味丸”으로 처방구성이 동일하게 나온다. “附子二兩 白茯苓 澤瀉 官桂 牛膝 車前子 山藥 山茱萸 牡丹皮各 一兩 熟地黃五錢 爲末蜜丸梧子大 每七十丸 空心米飲下 治脾腎虛損 腰重脚重 小便不利 如熱者 去桂附” 라 되어 있다.

2. 考察

처방구성만 『入門』에서 인용하였고, 주치 및 복용법은 다르므로 『丹溪』에서 인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黃米丸 ○ 治水蠱 乾絲瓜一棒 去皮 剪碎和 巴豆肉十四粒 同炒 以巴豆色黃爲度 去巴豆 入 陳倉米 如絲瓜之多少 同炒米黃色 去瓜取米 爲末 水丸梧子大 每湯下百丸 數服即愈 蓋 絲瓜 如人脈絡引巴豆之氣 入皮膚也 『入門』

1. 校勘

『入門』⁶⁰⁾에 處方名은 있으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漆雄丸 ○ 治水蠱 眞生漆一兩 鍋內容化麻布絞去滓復入鍋內 熬乾 雄黃一兩 爲末 右兩藥末 醋糊和丸梧子大 每四丸 麥芽煎湯 吞下 『入門』

53) 上掲書 p. 189
54) 上掲書 p. 189
55) 上掲書 p. 189
56) 中華醫書集成, 22책, p. 98

57) 中華醫書集成, 2冊, p. 250
58)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287
59) 上掲書 p. 290
60) 上掲書, p. 105

1. 校勘

『入門』⁶¹⁾에는 “古漆雄丸 眞生漆一斤 鍋內溶化麻布絞去渣復入鍋內熬乾 雄黃 一斤 爲末 醋糊丸梧子大 每四分 大麥芽煎湯下 治水蠱” 라고 되어 있다.

● 三花神佑丸 ○ 治中滿腹脹 喘咳 淋閉 一切水濕 浮腫 脹滿 濕熱沈積變生諸疾方見下門

1. 校勘

『東醫寶鑑』下門에 나오는 處方으로, 『宣明』⁶²⁾의 水濕門에서 인용 하였다고 되어있으며, “治中滿 腹脹 喘嗽淋閉 一切水濕 腫滿 濕熱腸垢沈積 變生疾病” 이라 되어 있다.

2. 考察

『宣明』은 劉完素의 저서로 書名은 『黃帝素問宣明論方』이다.

● 煨腎丸 ○ 治脾虛 邪水流注腰膝 浮腫而痛 甘遂生五錢 木香一兩 上爲末 每一錢 猪腰子一枚 剝開去筋膜 糝藥在內 薄荷葉裏定 外用濕紙四五重 慢火煨熟 臨臥細嚼 溫酒送下利 去黃水爲度 『丹心』

1. 校勘

朱震亨의 『丹溪手鏡』⁶³⁾에는 “治腎虛 杜冲炒去絲斷爲末三錢 以猪腰一个 批五七片 以鹽淹去腥水 摻末在內 包以荷葉 外用重重濕紙包定煨 酒下” 라고 되어 있으며 『丹溪纂要』⁶⁴⁾에는 “治腎虛腰痛” 이라 되어 있다.

2. 考察

『丹溪』의 腰痛편에서 나오는 처방명으로 복용법만 유사할 뿐 처방구성과 주치증이 다른 경우이다.

● 五皮散 ○ 因他病變作 水腫浮虛 大腹皮 茯苓皮 生薑皮 桑白皮 陳皮各一錢半 右剉作一貼 水煎服 『丹心』

1. 校勘

朱震亨의 『丹溪纂要』⁶⁵⁾에는 “治面目虛浮 四肢腫滿 心腹脹 上氣喘急 大腹皮 茯苓皮 生薑皮 桑白皮 陳皮 右剉 每服五錢 水煎服” 이라 되어 있다.

● 赤小豆湯 ○ 治年少 氣血俱熱 生瘡疥 變爲腫滿 赤小豆 猪苓 桑白皮 防己 連翹 澤瀉 當歸 商陸 赤芍藥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五 水煎服 『得效』

1. 校勘

『得效』⁶⁶⁾에는 “治年少 氣血俱熱 隱生瘡疥 變爲腫滿 或煩

或渴 小便不利 赤小豆 猪苓 桑白皮 防己 連翹 澤瀉 當歸 商陸 赤芍藥各半兩 上銼散 每服四一錢 水 一盞半 薑二片 煎至八分 去滓溫服 不計時候” 이라 되어 있다.

● 葶藶木香散 ○ 治水腫 腹脹 小便赤 大便滑泄 滑石三兩 白朮 葶藶子 猪苓 赤茯苓各一兩 木香 澤瀉 木通 桂皮 甘草各五錢 右爲末 白湯調下三錢 『正傳』

1. 校勘

『正傳』⁶⁷⁾에는 河間의 처방이라 하였고, “治濕熱內外基 水腫腹脹 小便赤澀 大便滑泄 此藥 下水濕 消腫脹 止瀉 利小便之聖藥也 葶藶子 茯苓(去皮) 猪苓(去皮) 白朮 各二錢 五分 木香 五分 澤瀉 木通 甘草 各五錢 辣桂 二錢五分 白滑石 三兩 上爲細末 每服 三錢 白湯調下 食前服” 으로 되어 있다.

● 大橘皮湯 ○ 治濕熱內攻 心腹脹滿 并水腫 小便不利 大便滑泄 滑石三錢 陳皮一錢半 白朮 赤茯苓 猪苓 澤瀉各一錢 桂皮七分 檳榔六分 木香五分 甘草灸四分 剉作一貼 入薑五水煎服 『必用』 확인안됨

■ 十水證

○ 一曰 青水 先從左右脇腫起 根在肝 用大戟 ○ 二曰 赤水 先從舌根腫起 根在心 用葶藶子 ○ 三曰 黃水 先從腰腹腫起 根在脾 用甘遂 ○ 四曰 白水 先從脚腫起 根在肺 用桑白皮 ○ 五曰 黑水 先從外腎腫起 根在腎 用連翹 ○ 六曰 玄水 先從面腫起 根在外腎 用芫花 ○ 七曰 風水 先從四肢腫起 根在骨 用澤瀉 ○ 八曰 石水 先從腎腫起 根在膀胱 用藜蘆 ○ 九曰 高水 先從小腹腫起 根在小腸 用巴豆 ○ 十曰 氣水 或盛或衰 根在大腸 用赤小豆 『本事』

1. 校勘

『本事』에는 나오지 않고 『入門』⁶⁸⁾에서 “濬川丸”의 처방설명에 유사한 내용이 “從面腫起 根在肺 加桑白皮 從四肢腫起 根在脾 加大戟 從背腫起 根在膽 加雄黃 從胸腫起 根在皮膚 加茯苓 從脊腫起 根在肝 加芫花 從腰腫起 根在胃 加甘遂 從腹腫起 根在肺 加商陸 從陰腫起 根在腎 加澤瀉 從手腫起 根在腹 加巴戟 從脚腫起 根在心 加葶藶” 이라 나와 있다.

2. 考察

『本事』에는 유사한 내용이 없으므로 “十水證”은 허준이 명명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상 인용서는 『入門』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 十水丸 ○ 治十種水氣 右十證 看病根源除 一味倍多爲君 餘九味等分 修製焙爲細末 蜜丸 梧子大 以赤茯苓湯 吞下 三丸或五丸 日二三服 忌食生冷 油膩鹹塩 及 猪魚酒麵一百二十日 ○ 神助散 亦佳方見上 『本事』

61) 上掲書, p. 291

62)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77

63)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068

64) 上掲書 p. 1297

65) 上掲書 p. 1284

66) 中華醫書集成 2冊 p. 191

67) 上掲書, 25冊, p. 103

68)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287

1. 校勘

『本事』에는 나오지 않고, 『入門』⁶⁹⁾에서 濬川丸의 처방 설명 중에 “共爲未加者一兩 餘藥 各五錢五 姜湯調下一錢以利爲度 忌魚麪塩 百日如百日內不慎 復腫者 將前未醋糊爲丸 每服州丸 木香湯下 治十種水氣 初起 故又 名十水丸” 이라고 나온다. 또한 朱震亨의 『丹溪手鏡』⁷⁰⁾ “十水丸” 처방에 “先服 次服 尊重大 胝葶藶炒 澤瀉去毛 大戟醋炒 芫花醋炒 桑白皮 漢椒 茯苓 雄黃 甘遂 右爲末三錢 用出絲水狗先去一邊未 入五更水下 以肉壓之 免惡心” 이라 나와 있다.

■ 結陽證

○ 1) 內經曰 結陽者 腫四肢 『陰陽別論』; 2) 註曰 素嘗氣疾 濕熱加之 氣濕熱爭 故爲腫也 邪氣漸盛 正氣漸微 陽氣衰少 致邪代正氣 不宣通 故四維發腫 諸陽受氣於四肢也 今人見手足 關節腫痛 全以爲風治者誤矣 犀角湯主之 『正傳』

1. 校勘

1) 『正傳』에는 없는 문구로 『內經』에서 인용하였다.
2) 『正傳』⁷¹⁾에는 “註曰”은 “王註曰”로 되어 있고, “於”는 “于”로 “手足”은 “膝”로 되어 있으며 “今” 앞에 “但”이, “誤” 앞에 “多”가 생략되었다. “犀角湯主之” 대신 “學者宜詳察之”라 되어 있다.

● 犀角湯 ○ 治結陽證 四肢腫閉 犀角 玄參各一錢 升麻 木通八分 連翹 柴胡各六分 沈香 射干 甘草各五分 芒硝 麥門冬各四分 右剉作一貼 水煎服 『入門』

1. 校勘

『入門』⁷²⁾에는 “治結陽 肢腫便閉” 이라 되어 있고, “右剉作一貼”은 나와있지 않다.

2. 考察

用藥 痛風 痺風편에 나오는 처방이다.

■ 氣分證 血分證

○ ① 氣爲飲膈 痞滿腹鳴 骨痛冷痺 則曰氣分 亦曰水分 ○ 經脈不行 血化爲水 四肢紅腫 則曰血分 皆水氣所之由作也 ○ ② 氣分 宜桂朮湯, 血分 宜桂苓湯 『直指』 詳見婦人門

1. 校勘

①에서 『直指』⁷³⁾에는 “亦曰水分”이 없고 “皆水氣所之由作也” 앞에 “凡此等類”이 있으며, ②는 삽입된 문장으로 水飲證治에 나오는 “桂朮湯治氣分前證”, “桂苓湯 治血分前證”을 편집하였다.

● 桂朮湯 ○ 治氣分 桂皮一錢半 白朮 麻黃 細辛 甘草各一錢 枳

殼 乾薑各七分半 右剉作一貼 薑五片 水煎服 『直指』

1. 校勘

『直指』⁷⁴⁾에는 “治氣分前證 辣桂 三兩 白朮 麻黃去節 細辛 去苗 甘草炒 各二兩 枳殼製 乾薑炮 各一兩半 右剉散每服三錢煎服” 이라 되어 있다.

● 桂苓湯 ○ 治血分 桂皮 赤茯苓 當歸 川芎 赤芍藥 蓬朮 三菱 桑白皮 檳榔 蒼朮 大腹皮 瞿麥 青皮 陳皮 甘草各五分 葶藶 大黃 煨各二分半 右剉作一貼 入薑五片 水煎服 『直指』

1. 校勘

『直指』⁷⁵⁾에는 “治血分前證 辣桂 赤茯苓 當歸 川芎 赤芍藥 蓬朮 京三稜 桑白皮炒 檳榔 蒼朮炒 大腹皮 瞿麥穗 青皮 陳皮 甘草炒 各半兩 葶藶 大黃濕紙 煨 各一分 右剉散 每服三錢薑五片煎服”

■ 婦人產前產後浮腫 詳見婦人門

■ 不服藥自去水方

○ 用丹房奇術 塗臍膏 消河餅

● 丹房奇術 1) ○ 治腫脹 不服藥 自去水 巴豆研去油四錢 水銀粉二錢 硫黃生一錢 右同研成餅 先用新綿一片 布臍上 次以餅掩之 外用帛縛 如人行三五里許 自然瀉下惡水 待下三五次 去藥 以粥補佐 『醫鑿』 ○ 久患者 隔日取水一餅 可救二三十人 『活人』 확인 안됨 ○ 2) 一方 治水蠱 商陸根赤者 杵爛貼臍上 以帛縛定水 自小便出 『丹心』

1. 校勘

1) 『醫鑿』⁷⁶⁾에는 “巴豆研去油四錢 眞水銀粉二錢 硫黃生一錢 上三味研成餅 今勻 先用新綿 一塊 鋪臍上 次以餅當臍掩之 外用帛縛 如人行三五里 自然瀉下惡水 待 行三五次 除去藥 以溫白粥補之”라 되어 있다.

2) 朱震亨의 『丹溪摘玄』⁷⁷⁾중 “腫脹丹方”에는 “水鼓 商陸根赤者 杵爛貼臍上 必用絹緊束定 病從小便中出” 이라 나와 있다.

2. 考察

『醫鑿』에는 “導水餅(秘方)”으로 되어 있고, 『丹溪摘玄』에는 “腫脹丹方” 이라 되어 있는데, 내용만 인용했을 뿐 처방명은 『入門』⁷⁸⁾에 나오는 “丹房奇術”로 하였다.

● 塗臍膏 ○ 治水腫小便絶少 地龍生研 猪苓 甘遂鍼砂 各五錢 右爲末 搗葱涎調成膏 敷臍中 約一寸 以絹帛束之 以小便多爲度

69) 上掲書 p. 288
70)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081
71) 中華醫書集成 25冊, p. 52
72)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253
73) 欽定四庫全書 12, p. 744-189, 190, 191

74) 上掲書 p. 744-190
75) 上掲書 p. 744-191
76) 中華醫書集成 26冊, p. 98
77)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1566
78)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290

日兩易之『得效』

1. 校勘

『得效』79)에는 “封臍膏”로 되어 있으며, “約一寸” 뒤에 “高闊”이 있고, “之”는 없다.

● 消河餅 ○ 治水腫膨脹 大田螺四箇 大蒜五箇 車前子末三錢 右研成餅 貼臍中 以帛縛之 少時 尿出如注即愈 『醫驗』

1. 校勘

『醫鑑』80)에는 “上三味研成餅 貼臍中 以手帕縛之 貼藥後 少頃 小便出 一 二餅 即愈”로 되어 있다.

■ 浮腫通治藥

○ 宜 加減胃苓湯 四苓五皮湯 集香湯 實脾飲 沈香琥珀丸 三仁丸 椒歧元 海金砂散 『諸方』

● 加減胃苓湯 ○ 治浮腫 蒼朮一錢半 陳皮 澤瀉 白朮 赤茯苓 木瓜各一錢 厚朴 豬苓 神麴 檳榔各八分 山查肉 縮砂各七分 香附子 薑汁炒 大腹皮各六分 甘草炙三分 右剉作一貼 入葷三 燈心一團 水煎服 『醫驗』

1. 校勘

『醫鑑』81)에는 “治腫”으로 되어 있다.

● 四苓五皮湯 ○ 治浮腫 桑白皮 陳皮 地骨皮 茯苓皮 生薑皮 大腹皮 蒼朮 白朮 澤瀉 豬苓 青皮 車前子炒 各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辨疑』 확인안됨

● 集香湯 ○ 治虛腫 先用此 以透關絡 然後審證療之 木香 藿香 川芎 赤茯苓 檳榔 枳殼 甘草各三錢 沈香 丁香各二錢 乳香一錢半 麝香1字 右爲麤粗末 每三錢入 葷三片 紫蘇五葉 煎服空心 『直指』

1. 校勘

『直指』82)에는 “沈香 丁香 各貳錢 木香 青木香 藿香 川芎 赤茯苓 檳榔 枳殼製 甘草炙 各參錢 乳香 壹錢半 麝香 一字別研 右麤末 每貳錢半 葷參片 紫蘇參 葉 空心煎服 虛腫 先用諸香 以透關絡 然後審證療之”라고 되어 있다.

● 實脾飲 ○ ① 治水腫 膨脹 蒼朮 白朮 厚朴 赤茯苓 豬苓 澤瀉 縮砂 香附子 枳殼 陳皮 大腹皮 木香(別磨水取汁)各七分 ② 右剉作一貼 入燈心一塊 煎去滓 調木香水 服之 『回春』

1. 校勘

①은 『回春』83)에 “膨脹”이 없고, “赤茯苓”은 “茯苓”

79) 中華醫書集成 2冊 p. 191
80) 中華醫書集成 26冊, p. 98
81) 上揭書 p. 98
82) 欽定四庫全書 12, p. 744-344

으로, “各七分”은 “各等分”으로 되어 있으며 ②는 “上剉一劑 燈心一團 水煎磨木香調服”으로 되어 있다.

● 沈香琥珀丸 ○ 治水腫 尿澀 葶藶子炒 郁李仁 沈香各一兩半 琥珀 杏仁 蘇子 赤茯苓 澤瀉各五錢 右爲末 蜜丸梧子大 麝香爲衣 每三十丸 至五十丸 以蘿蔔子 煎湯下 『辨疑』 확인안됨

● 三仁丸 ○ 治水腫 喘急 大小便不利 郁李仁 杏仁 薏苡仁各一兩 右爲末 糊丸梧子大 米飲下 四 五十丸 『得效』

1. 校勘

『得效』84)에는 “上爲末 米糊丸如梧子大 每服四十丸 不拘時米飲下”라 되어 있다.

● 椒歧元 ○ 治浮腫神方 椒目一錢 歧二七粒 巴豆1箇 去皮心熬 右研細 滴水和 丸菴豆大 溫水 吞下三丸 或五丸 以微注爲度 氣盛者 巴豆或二箇或三箇 『活人心』 확인안됨

● 海金砂散 ○ 治脾濕太過腫脹 喘急 黑丑頭末一兩半 一半炒一半生 白朮一兩 甘遂五錢 海金砂三錢 右爲末 每二錢 煎倒流水一盞 食前調下 『東垣』

1. 校勘

李東垣의 『醫學發明』85)에는 “治脾濕太過 通身腫滿 喘不得臥 腹脹如鼓 牽牛一 兩半 半生半炒 甘遂 海金砂 各半兩 右爲細末 每服二錢 煎倒流水一盞調下 食前 得宣利 止後服”라 되어 있다.

● 一方 ○ 治外腎腫大 莖物水泡 通明方 1) 木香流氣飲(方見氣門) 加白芷 木通 紫蘇葉 煎湯 吞下 青木香元(方見前陰) 百粒效 『直指』 ○ 2) 又方 腫滿後作瘡 或發水疱 成瘡 是脾土崩壞 宜平胃散 細末清油調付 濕則乾糝立愈 『得效』

1. 校勘

1) 『直指』86)에는 “二十四味流氣飲”으로 되어 있고, “葉”, “湯”, “下” 지는 없으며 “青木香元”은 “青木香圓”으로 되어 있다.
2) 『得效』87)에는 “是脾土崩壞” 뒤에 “及一切瘡 清油調敷 濕則用糝立愈”이라 되어 있고, “宜平胃散”은 “眞平胃散”으로 되어 있다

■ 可治不治證

83) 中華醫書集成 27冊, p. 98
84) 中華醫書集成 26冊, p. 191
85) 金元四大家醫學全書 p. 751
86) 欽定四庫全書 12, p. 744-347
87) 中華醫書集成 26冊, p. 389
88)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108
89) 中華醫書集成 2冊 p. 93
90) 中華醫書集成 26冊, p. 5
91)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104
92) 欽定四庫全書 12, p. 744-343
93) 中華醫書集成 2冊, p. 251
94) 上揭書 p. 190
95) 編註醫學入門 外集卷二 p. 108

○ 1) 凡浮腫 陰囊軟者 可治 『入門』 ○ 2) 患腫人 腹上以手按之有窩者 可治 『醫鑿』 ○ 3) 腫滿善證 男從上而腫下 女從下而腫上 所患未久 漩利腫退 喘定則愈矣 『得效』 ○ 4) 男從 腳下腫上 女從頭上腫而下 皆不治 ○ 男從腳下 女從頭上腫起 皆爲逆陰 陽微妙如此 『入門』 ○ 5) 大凡 虛腫 起於腹而後 散於四肢者可活 先起於四肢而後 歸於腹者 不治 ○ 至若壘脹而肚 上有青筋 ○ 腹滿而大便滑泄 ○ 久疝而轉作虛浮 ○ 與夫唇黑 傷肝 缺盆平 傷心 臍突 傷脾 足心平 傷腎 背平 傷肺 皆爲不治之證 ○ 或肉硬 或手掌平 皆不治 『直指』 ○ 唇腫 齒焦者死 ○ 卒唇腫而蒼黑者死 ○ 掌腫無紋者死 ○ 臍腫凸出者死 ○ 缺盆平者死 ○ 陰囊莖俱腫者死 ○ 脈絕口張 足腫者死 ○ 足趺腫 膝如斗者死 『正傳』 ○ 6) 凡水腫大 喘氣躄不食 乃腎水盈溢 上行 傍浸於肺也 不治 『得效』

1. 校勘

- 1) 『入門』⁸⁸⁾에는 “囊軟者 可治” 라고 되어 있다.
- 2) 『醫鑿』⁸⁹⁾에는 “腫” 이 없으며 “以” 는 “用” 이라 되어 있다.
- 3) 『得效』⁹⁰⁾에는 “而” 가 없으며, “漩利腫退” 은 “利漩退腫” 으로 “喘定” 은 “定喘” 으로 되어 있다.
- 4) 『入門』⁹¹⁾에는 “下” 뒤에 “腫起” 가 “起” 뒤에 “者” 가 있고 “皆” 는 없다.
- 5) 『直指』⁹²⁾에는 “足心平” 이 “足平” 으로 되어 있고, “皆爲不治之證” 뒤에 “當明辯之 男從腳下腫而上女從身上腫而下” 라고 연결되어 있다.
- 6) 『得效』⁹³⁾의 分氣飲 처방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凡水腫大喘氣躄” 은 “大喘氣粗” 라 되어 있고, “也” 가 없으며 “不治” 는 “亦不治” 라 되어 있다.

2. 考察

校勘 5)의 “男從 ~ 而下” 는 『入門』 에서 인용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 禁忌法

○ 1) 凡水腫 惟忌塩 雖毫末許 不得入口 若無以爲味 卽水病去後 宜以醋少許 調和 飲食不能 忌塩 勿服藥 果欲去病 切須忌塩 『得效』 尤忌 鍼刺犯之 流水而死 2) 凡水腫 極忌甘藥 助濕作滿 『入門』 病嗽 及水 全宜禁塩 『本草』 확인안됨

1. 校勘

- 1) 『得效』⁹⁴⁾에는 “凡水腫” 이 없고 “勿服藥” 이 “勿服” 으

로 되어 있다.

- 2) 『入門』⁹⁵⁾에는 “凡水腫” 이 없다.

2. 考察

校勘 1)은 『得效』의 禹余糧丸 처방 중에 나오는 禁忌法으로, 필요한 문구는 처방 중에서 인용하기도 하였다.

결론

동의보감의 원문과 인용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부종편의 단방을 제외한 인용문과 원문을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皇帝內經 素問에서 인용된 篇名은 『素問·至眞要大論』 『素問·陰陽別論』 『素問·水熱穴論』 『素問·評熱病論』 『素問·平人 氣象論』 『素問·六元正紀大論』 등이고, 靈樞에서 인용된 篇名은 『靈樞·五癯津液別』 『靈樞·論疾診尺』 『靈樞·刺節眞邪』 篇 등이다. 內經에서 인용한 문구는 원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한두 글자만 삽입과 탈락이 있을 뿐 대체로 의미는 훼손되지 않았다. 內經외의 의서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나 글자를 생략하거나 혹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나 글자를 첨가한 곳이 많았다. 인용의 서 중에는 浮腫과 관련 있는 臞脹편이나 小兒편에서도 일부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1. 欽定四庫全書子部五醫家類, 大成文化社 1995.
2. 靈樞經校釋, 河北醫學院,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編註醫學入門, 李梴, 大成文化社, 1990.
4.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總纂,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5. 中華醫書集成, 中華醫書集成編輯委員會, 中醫古籍出版社, 1999.
6. 新編仲景全書, 張仲景, 大成文化社, 1993.
7. 東醫寶鑑校釋, 高光震, 人民衛生出版社, 2001.
8. 原本 東醫寶鑑, 許浚, 아카데미출판사, 1976.
9.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國譯委員會, 법인문화사, 1999.
10. 小兒藥證直訣, 錢乙,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11. 한송 정우열교수 정년기념 한송논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동문회, 2003.